

젊은 예술가, 시장논리 넘는 시각 가져야

이우환 작가

“잘 팔리는 작품만 할까 걱정돼
‘한순간 열기에 일희일비 말아야’

“미술품 시장 공기는 열기를 띠었다가
도 금세 사라집니다. 젊은 예술가들은 좀
더 멀리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 예술 무대에서 주목받는 이우환
(79·사진) 작가는 21일 오후(현지시간)
영국 런던 주영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작
가와와 만남’ 자리에서 젊은 아티스트들
에게 조언을 해달라는 객석 요청에 이같
이 말했다.



그는 “나와 젊은
아티스트가 (예술
을 하는) 같은 선상
에 있기 때문에 조
언할 것이 없다”고
운을 땀 뒤 “어떤
작품이 잘 팔리는
지 시장 논리를 추
구하다 보면 자칫 말려들어 시장에서 잘
돌아가는 것만 하려 하지 않을까 걱정”이
라고 말했다.

그는 “미술품 시장에서 한순간 일어난
열기가 식어도 남을 것이 무엇인지를 늘
염두에 뒀야 한다”며 “좀 더 멀리 보는 시

각을 가지지 않으면 시장 논리에 급속도
로 휘말려 들지 모른다”고 조언했다.

‘현대 미술은 다 쓰레기’라고 말하는 사
람들도 있다는 점을 언급한 그는 “메타포
(은유)가 없고 그냥 쓰레기로 끝날 때가
정말 많다. 멀리 보고 예술을 생각해달
라”고 강조했다.

이우환은 최근 4년간 세계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낙찰 총액 기준 ‘생존 작가’ 43
위에 올라 국내 미술가 가운데 최고 성적
을 냈다.

그의 작품들은 오는 24일 런던 리슨 갤
러리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 관객을 맞는
다. /조상인기자 ccsi@sed.co.kr